

# 잊혀진 영웅 권영벽(權永壁) 열사

권영벽은 1945년 3월 일제 폐망 불과 몇 달 전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서른 여섯의 짧은 삶을 마감했다. 최후에 순간에도 '조국, 그것은 나의 마음이며 어머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노래 부른 독립지사였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를 잘 모르는가? 그가 김일성이 자랑하는 '보천보 전투'의 핵심 인물로서 사상 첫 국내진공작전을 지휘했다는 거와 이후 일제의 소탕작전 즉 '해산사건'으로 마동희, 이제순, 박금철 등과 장백현에서 체포되어 혜산감옥을 함흥에서 1심 재판을 받고, 2심은 경성(서울) 서대문 감옥에서 받고 3심은 기각 처형되었다. 이후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능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1975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30돐을 맞이하면서 대성산의 혁명열사릉에 권영벽의 반신상이 세워지기 까지 하였다. 더구나 김일성 전기 '세기와 더불어' 등에도 언급되어 있으니 그 동안 정당한 평가가 될 리가 없는 실정일 것이다.

중국 장백현에 권영벽 열사묘(?) '항일전쟁 100열사 기념탑', 그리고 무송현 등지 항일전적지에 '기념비'로 남아 있다고 한다.

여기서 보천보 전투의 지휘자가 김일성(본명 金聖柱 1912-1994)이 아닌 다른 김성주(金成柱 1901-1937, 모스크바 공산대학 출신?)이고 보천보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설, 그리고 박금철(朴金喆, 1911-1967?)은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서 1948년 남북협상으로 방북한 모씨에게 박금철이 지금 김일성이 아니라고 말했다고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건 따로 따져 볼 문제이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김일성 일파'라는 제목이 보이나 '金一成'이라고 나온다.

이 문제는 몇 년전 조선족 작가 유순호가 '김일성 평전'을 썼는데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한다.

권영벽은 1909년 함경북도 경성군 용성면 수성리(현재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리)의 빙농가정에서 권호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본명은 권창욱(權昌郁) 변명(變名)은 김말남, 김수남, 김창만, 김창옥(金沫南 金壽男 金昌滿 金昌郁) 등으로 불렸다.

이후의 그의 행적은 회고, 소설 등에 나오는데, 대략 그의 '연보'를 보면 대략 알 수가 있다.

1909. 8. 8 함북 경성군 용성면 수성리에서 태어남

1918. 4 중국동부지방의 연길현으로 이주

1930. 봄 대성중학교 입학

1932. 중국공산당 입당 부친 사망, 모친 이별,

1933~34 삼도민유격근거지 인민혁명정부 회장, 결혼(황금옥)

1936. 7 동북항일연군 제2군 6사 선전과장

1936. 10 조국광복회 신흥촌 지회 조직

1937. 2 장백현 당위원회 위원장 겸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 부위원장

1937. 6. 4 보천보전투에 참가

1937. 10 혜산에서 체포됨, 혜산 사건

1945. 3. 10 사형집행됨

그의 행적은 부인 황금옥의 저서 <권영벽동지를 회상하며> 등에 잘 나타나 있다.

1932년에 일본군이 집과 아버지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목도하고 1933년 10월 응구구위 당시로 일하던 권영벽과 연길현 부녀회 순시원으로 활동 중이던 황금옥(黃金玉)이 만나서 부부이자 동지로 항일투쟁을 함께하게 된다.

권영벽은 과묵하고 조직적이고 희생적이고 대담했다는 것 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가 일제에 의해 체포 후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엄청난 정신력으로 버티며 항거하다가 죽은 것인데, 그의 시신이 어찌 처리 되고 안장 되었는지는 명백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안동권씨로서 죽보에 이름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북한 및 만주 거주 죽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하다. 대략 북한 포함 한국 외 권씨가 17만명으로 추산되는 정도이다.

이제 1945년 이전 사망자는 공산당이라도 독립유공자로서 자격이 있으니 고려해 봐야 하지만, 현재 분단상황에서 여건이 어려운 지경이나 일단 '광복회'에 문의해 보려고 한다. 전향적이고 통합적이며 이상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권영벽의 발언 내용을 훑어보면서 그의 정신세계의 일단을 해아하고 진정한 통일의 시대가 와서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가 늘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조국, 그것은 나의 마음이며 어머니다.> 해방전 사망한 그의 '조국'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통일된 나라까지 설마 갈라지고 전쟁하고 70여년을 분단된 채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이를 본다면 통곡 할 것이다.

이제 권문의 새로운 인물 하나를 찾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조출한 기념사업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어록, 작품에 나오는 장면, 사건 기록표를 언급하면서 추후 자세한 내용을 연재하고자 한다.

## [권영벽 어록]

1936년 체포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동지들에게 전하는 말.

『모든 것을 부인하라. 놈들은 아직 조직의 내막을 모르고 있다. 목숨으로 혁명과 조직의 비밀을 지키자』이에 동지 마동희는 "네놈들은 내 입에서 다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혀를 깨물어버렸다. 그 후 그는 8일 만에 사망했다.

함흥재판소에서 사형 언도 받고 이감 하기 전, 부인 황금옥에게 남기는 말.

『금욕동무 울지 마오! 나는 사형을 받았다고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할 사람아 아니오. 혁명을 위해서 흘리는 피가 무엇이 아깝겠소. 걱정하지 말고 몸을 주의하오.』

이에 황금옥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의 목소리,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구나"하고 통곡했다고 한다.

1941년 8월 23일 열린 공판에서 권영벽이 일제의 재판관에게 토해내는 말.

『당신들은 이런 날조된 판결을 내리려고 죄 없는 사람을 4년이나 감방에 처박아두었는가? 우리의 죄목이 무엇인지 말하라.... 만약 우리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죄가 있다면 나는 묻고 싶다. 남의 나라를 강점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살육하고 같은 악착한 짓을 다하였으며 모든 재물을 강탈한 당신들의 죄행에 대하여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고도 아니고 판사의 언도도 승인할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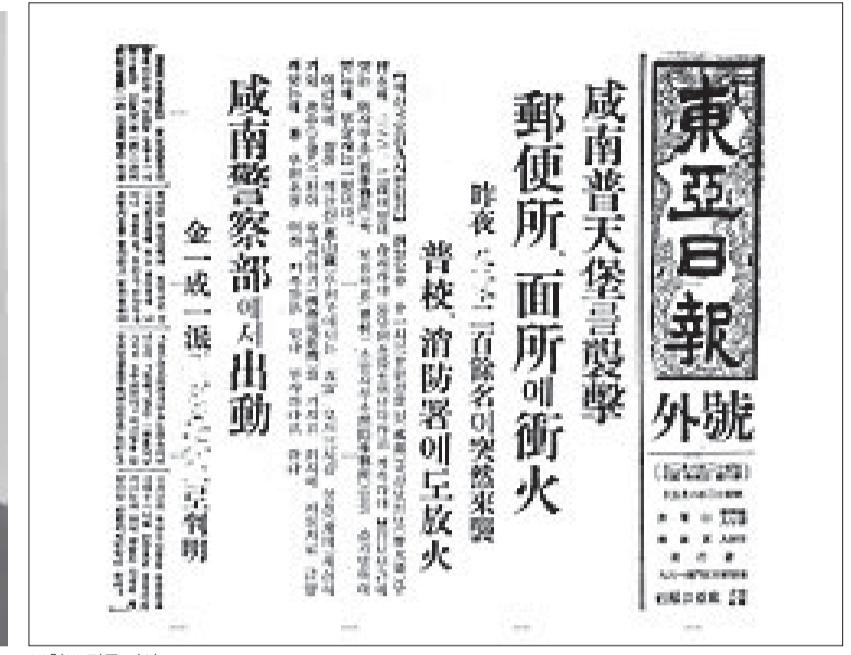
## 1936년 국내잡임 후 발언

『우리들의 심장뿐만 아니요 산 전체 조선사람들의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있는 이 나라 금수강산에 그 어떠한 원수도 영원히 밭을 불일 수 없소. 일제놈들은 반드시 망하고 우리는 꼭 승리할 것이요. 자! 보오. 조국땅이 얼마나 아름답소! 우리는 하루 속히 일제놈들을 쳐물리치고 조국땅을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오.』

권영벽은 과묵하고 조직적이고 희생적이고 대담했다는 것 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가 일제에 의해 체포 후 그 모진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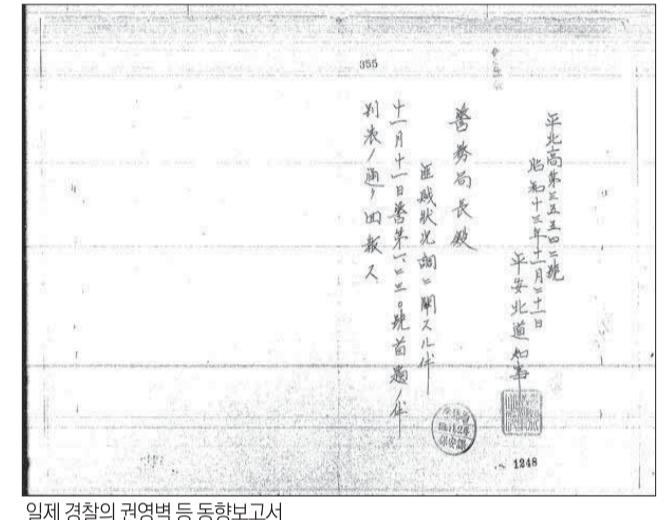
권영벽



보천보 전투 기사



백산현 17도구 권영벽 집터



일제 경찰의 권영벽 등 동향보고서

권영벽의 감방에는 죄수들의《교화》를 위한 신문인《미찌》(길)도 들어보내주지 ... 이를날 오전, 세상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늘 공동묘지처럼 괴괴한 정적속에 묻혀 ... 과 증오, 죽음의 세계에는 공동묘지에서와 같은 괴괴한 정적 속에 씨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권영벽은 고문장의 통나무기둥에 걸박당해 있었다. 그의 가슴과 허리, ...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6권, 제6권 제16장 5. 권영벽(제3회)

권영벽은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었다. 선전일군이라면 의례히 말을 잘하는 것으로 통하고 있지만 그는 사단선전과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말을 많이 하지 ...

권영벽, 박록금, 황금옥이 그를 잘 도와주었다. 나는 보천보 전투전에 신흥촌에 가보고 이 마을 인민들의 혁명군에 대한 열렬한 환영과 단결된 모습 앞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 [3·1 운동 100주년 연중기획-독립] 권영벽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는 아버지 시신과 함께 그의 초가집을 불태워 버렸다. 그는 비운 속에서 어머니와 헤어져 연길현의 삼도만 유격대로...

- 〈장백현 17도구 방문기〉

- 17도구(吉林省白山市長白縣金華鄉十七道構村)에서 암록강 쪽으로 1km 정도 내려간 계곡의 산등성이에 재만조선인조국광복회의 지도자이자 중국공산당 장백현 공작위원회의 책임자인 권영벽(權永壁)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공작위원회의 부인부 책임자인 황금옥(黃金玉)도 이곳에 거주하였다. 17도구 인근은 밭으로 변하여 당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글 권오철)

## 2020年 3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죽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 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권갑경(원주)	30,000	권동찬(경주)	30,000	권영복(제천, 하소동)	30,000	권우택(서울강북)	30,000	2020년 선납자	
권경상(군산)	30,000	권민집(대구)	30,000	권영수(영천)	30,000	권은진(대구)	30,000	*경주천목회	30,000
권경일(대구)	30,000	권상우(군위)	30,000	권영식(밀양)	30,000	권의학(의산)	30,000	권기향(대구)	30,000
권계수(청녕)	30,000	권석창(서울중구)	30,000	권영식(서울서대문)	30,000	권이원(김포)	30,000	권영학(서울동대문)	30,000
권광규(오산)	30,000	권성일(대구)	30,000	권영익(안동, 기아리)	30,000	권장순(양평)	30,000	권종호(원주)	30,000
권광대(의성)	30,000	권세동(대구)	30,000	권영오(서울노원)	30,000	권정택(상주)	30,000	권태연(제천)	30,000
권광로(서울구로)	30,000	권수기(대구)	30,000	권영원(서울강남)	30,000	권종렬(진주)	30,000	지사지국 납부자역	
권규택(서울중구)	30,000	권수보(경주)	30,000	권영창(경주)	30,000	권종섭(안동)	30,000	권혁세(안동)	1,100,000
권기룡(경주)	30,000	권순복(경주)	30,000	권영기(창원)	30,000	권종열(봉화)	30,000	부산종친회(권성용 회장)	2,330,000
권기원(안동, 송현동)	30,000	권승욱(용인)	30,000	권오경(정읍)	30,000	권영희(경주)	30,000	수원종친회(권병후 회장)	360,000
권기준(의정부)	30,000	권영균(정읍)	30,000	권영기(서울광진)	30,000	권현광(경주)	30,000	통영종친회	100,000
권기출(여주)	30,000	권영기(전주)	30,000	권오중(남양주)	30,000	권혁수(정읍)	30,000	전주완주 종친회	40,000
권기하(안동)	30,000	권영길(봉화)	30,000	권오청(서울은평)	30,000	권혁영(서울영등포)	30,000	논산종친회(권병수)	300,000
권동기(안동)	30,000	권영대(영주)	30,000	권오현(서울동작)	30,000	권혁인(대구)	30,000	부호장공파	200,000
권동석(보령)	30,000	권영대(제천)	30,000	권용운(의산)	30,000	권홍식(의성)	30,000	연천종친회(권오민)	400,000
권동수(안동)	30,000	권영목(서울중랑)	30,000	권우정(음성)	30,000	권우병(논산)	30,000		
권동순(대전)	30,000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 26. ~ 3. 26.

• 총 납부자 73명/지사 8곳 • 금액 : 7,020,000원